

무주군-팀차붐, 손 잡았다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리그 붐 in 무주'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4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사)팀차붐과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리그 붐 in 무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사)팀차붐 차범근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과 팀차붐의 역량 및 자원을 활용해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또 상호지원 성과 등을 공유·활용하는 한편 홍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리그 붐 in 무주'에 대한 교육과 행사운영, 자원봉사 등에 협조해 나갈 뜻을 확실히 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유소년 팀들의 전지훈련과 친선경기 등으로 맺은 인연이 '리그 붐 in 무주'로 이어진데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낀다"며 "행사 지원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한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인 유소년 축구팀을 응원하는데도 무주군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그 붐 in 무주'는 한국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사)팀차붐이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4월 참가팀 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8일까지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다.



무주군은 지난 4일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사)팀차붐과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 및 '리그 붐 in 무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가 인원은 무주군 관내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학생 총 75명으로 4월 19일과 27일 지도자교육이 진행됐으며 (5. 4.~)6월 29일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리그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7월 8일 개최될 시상식과 페스티벌 행사에는 서울차범근축구교실과 고창차범근축구교실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팀차붐 관계자는 "2023 리그 붐 in 무주는 선수 육성 목적이 아니라 늘 이식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스포츠가 정말로 재미있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무주군 어린이들이 축구 기본기를 배우면서 스포츠 정신을 터득하고 신체 균형발달을 이루는데도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13건 안건 처리·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축구건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28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이어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이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력양성 스마트관시설하우스 조성사업, 운임임반일암캠핑장 조성사업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82억2,000만원을 확정했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효과성이 낮거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19건, 12억 2,000만원은 삭감했다.

또한 부귀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지, 귀농귀촌 청년케어하우스 등 주요사업장 13개소를 살펴본 뒤 군민의 목소리가 현장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명갑 의원이 제안한 '진안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축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을 살펴보면 "응답팀 건설로 인해 1만8,000여 명의 진안군민이 정든 고향을 떠났고, 진안군 면적의 14%가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광역상수원 수질 보전과 탄소중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라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확대와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와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속에서도 용담호를 맑고 깨끗하게 지켜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라도 이에 상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활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통해 희망찬 미래진안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지난 4일 세계태권도연맹을 방문했다.

무주군, 세계태권도연맹 방문

우선협상대상도시 선정 과정 질의·향후 협력안 논의

무주군이 지난 4일 세계태권도연맹(이하 세태연)을 방문했다. 이혜심 무주군청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태권도팀 관계자들은 이날 서정장 세태연 사무총장을 만나 세태연 본부 타 지역 이점 문제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우선협상대상도시 선정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심 행정복지국장은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대동단결했던 어제를 뒤로한 오늘이 너무나도 냉혹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우리나라가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태연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단체가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결집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바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

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양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추진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유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세태연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혜심 국장은 "세태연은 전 세계 회원국(212개국)을 보유한 단체인 만큼 세태연 체납을 활용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홍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용역 추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과 세태연은 지난 2021년 2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과 양 기관 행사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별 기금 등 사업 추진에도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주로 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 속 장수 어린이'... 장수 어린이날 한마당 성황리

어린이·주민·교사 등 총 1600~1700여명 참여

어린이날을 맞아 5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장수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계 속 장수 어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는 어린이, 주민, 교사, 지역사회 기관, 지역활동가 등 1,600~1,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로봇조종배틀, 캐리커처 그리기, 숲 밭깎놀이, 플로킹 분리배출, 토탈공예, 어린이 안전캠페인, 인형네컷, 팝아트 전시회, 전복교육청의 과학체험부스 등 다채로운 체험이 펼쳐졌다.

또한, 사랑, 떡볶이, 아이스크림, 파자, 음료수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운영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장수 어린이날 한마당은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가 2008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오후에 소외감을 느끼는 많은 장수지역 어린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민간, 지역사회가 자발적인 후원과 협력을 통해 개최하고 있으며, 군과 장수교육지원청이 후원하며 어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제15회 장수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가 열린 가운데, 참여한 어린이들이 행사장 내에 마련된 각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린이날 대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한 취지로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참여자들이 컵과 용기를 준비해 쓰레기 없는 행사로 이뤄졌다.

또한 장에 청소년들도 당당한 주체로 참여해 부스를 직접 운영하고 장수 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장수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꿈을 키워나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장수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 행사가 매년 더욱 발전해 지역 대표 어린이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임진왜란 당시 장수향교 지킨 '충복 정경손' 제례봉행 거행

장수군이 지난 4일 장수향교 정경손 비각 앞에서 임진왜란 당시 장수향교를 지킨 충복 정경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례봉행을 거행했다.

이날 제례봉행에는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를 비롯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장수향교 유림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례봉행에는 충복 정경손의 후손 정지상 씨가 처음으로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날 제례에서는 이종훈 부군수가 초헌관을, 허윤중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아헌관을, 오재영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장이 종헌관을 맡아 제례식을 거행했다.

충복 정경손은 임진왜란 당시 향교 내 문묘 지킴이로 생활하던 중 장수에 침입한 왜적이 문묘에까지 이르자 문을 굳게 닫고 "만약 문에 들러거든 나의 목을 베고 달라"고 호통쳐며 당당하게 맞섰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왜적이 본성역 물범(本城域勿犯,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침범하지 말라)이라는 문장을 남기고 스스로 물러나 장수향교가 불에 소실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이에 1846년(조선 헌종

12년) 정주석 장수현감이 정경손의 거룩한 기개를 이어받기 위해 '호성충복 정경손수명비(護聖忠僕丁敬孫名碑)'를 세웠으며, 장수군은 장수삼절(長水三節) 중 한 본으로 그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을 이어가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15일 제례 봉행을 거행하고 있다.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신분을 떠나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향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충복 정경손의 정신을 본받고 이어가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향교를 잘 보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진안군청소년수련관, 협약 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와 진안군청소년수련관은 양 기관 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청년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층의 진로선택과

취업지원에 관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각 기업의 채용경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소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체계 확대 △청소년들의 적극적 인 진로·취업지원 사업 △진로선택 및 구직기술향상을 위한 직업지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정보 공유 △기타 청소년층 진로·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장한어버이 12명에 유공자 표창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1회 어버이날에 장한어버이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녀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를 키운 주인공을 선정하여 그 노고에 감사사를 드리고 주변의 귀감으로 삼게 하고자 마련했다.

장한어버이 표창 대상자는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었고, 진안읍 박명진(60)씨를 비롯해 11명이 표창패를 받았다.

수상자는 △진안읍 박명진(69)·황갑(74) △용담면 김영자(79) △안천면 정정균(88) △동향면 박경태(85) △상전면 육옥자(64) △백운면 한순이(86) △상수면 구양원(83) △미령면 송봉순(90) △부귀면 이종철(82) △정천면 허영순(85) △추천면 전원홍(78)이다.

전춘성 군수는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현상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장수군 복지안내서' 배포

장수군이 군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장수군 복지안내서'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발간은 군민의 복지 체감도와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작됐다.

내용은 생애주기별(연령별) 및 위기상황별(경제곤란 및 실업 등)로 군에서 제공 가능한 사회보장 서비스 10개 분야 132개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신청 방법과 더불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개 등 장수군 복지정책에 대한 최신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마령초·중학교서 어린이날 간식데이 행사

진안군 마령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명기)와 마령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홍인준)는 관내 아동 청소년이 미래의 꿈을 마음껏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령면 아동·청소년의 미래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일, 5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생일축하 및 간식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일이 다가오는 13명에게 생일케이크를 전달하고 초·중학교 전교생에게 과자 등을 선물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마령면 지사합에서 2023년도 마령면 마을복지계획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과, 제빵 및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친구들과의 나눔이 더해져 의미가 더 컸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과자를 여러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니 뿌듯하고 교육에 참여한 보람을 느낀다며 즐거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